

연 중 제 22 주 일

기도서 P. 424 C해

- 1독(질 회 3, 19~21. 30~31절)
- 2독(히브리 12, 18~19. 22~24)
- 복음(루 가 14, 1, 7~14절)

#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론 □



## 사랑의 이변

안    동    기    신    부

10여 년이 지난 학창시절의 일이었다. 여름방학을 하여 활가분한 마음으로 시골집에 와보니 송아지만한 돼지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정말 귀여웠다. 울막을 보니 더럽기에 말끔히 치우고 농약을 몇방울 수대에 타서 소독을 해주었다. 하루가 지나자 이변이 생겼다. 새끼들이 온 몸이 벌겍게 되어 비틀거리더니 하나 둘 셋 다 죽어갔다. 며칠 후에 어미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아뿔사 약을 사왔지만 이미 늦었다. 착잡한 맘으로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어미 돼지도 죽었다. 멍청히 서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잠잠히 말씀하셨다. “좀 물어 보고 하지.”

지금 나는 이 사건을 사랑의 이변이라고 생각해 본다. 깨끗한 곳에서 잘 자라라고 힘겹게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해 주었는데 돼지는 죽었다. 혼인의 밀천도 자녀의 등록금도 될 수 있는 꿈도 죽었다. 문제는 돼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악취를 없애는 청소였다.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성취하려는 행복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작용의 근절 작업이었다.

저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에 청소를 하려한다. 그래서 인권옹호와,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후예들이 생겨나고, 이를 용납치 않는 헤로디아의 후예들도, 헤로메의 후예들도 생겨난다. 새마을, 새마을 운동도, 긴급조치도, 판자촌에 휘둘러지는 함마도 생겨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머리로 질끈 동여매 본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리라 긍정해 본다.

그러나 사랑의 이변속에 돼지도 꿈도 죽이지 않기 위해 야훼를 바라보자.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하셨던 전권주(全權主) 야훼께서는 인류 구원이란 최중대 지상과제를 놓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자세한 설명과 대화를 한달 시골 처녀 마리아와 나누신다.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아집에 사는 노인도 현실에 사는 청년도 부정에 사는 청년도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예 사람(yes men)”만 초대할 것이 아니라 “아니오 사람(no men)”소리도 들어보자. 자기 생각만이 다라고 하지 말자.

사랑의 이변속에 너와 나의 행복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주현동 천주교회 주임 신부)



## 농민의 소리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에 농협의 목적이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개별 분산적인 영세 소농이며 동시에 소비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협의 사명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만일, 농협이 민주적 기반위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농민의 절실한 요구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농협 운동을 통한 농촌의 민주화와 농업문제 해결이라는 1,300만 농민의 기대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中略)

따라서 우리는 농민의 지상과업인 농협의 민주적 발전을 뜨겁게 염원하여 우리의 책임을 절감하고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협 실현을 위해 자각있는 분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철폐하여 조합장 선거제를 실시하라.

1. 농협은 부당한 출자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

1. 비로가격을 인하하고 비로의 자유판매제를 실시하라.

1. 농협은 비로 부정도입으로 인한 농민피해 40억원을 변상하라.

1. 합평 고구마 피해농가의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라.

1. 농협은 대정부 의존적인 존립에서 벗어나 농민에게 돌아오라.

1977년 8월 16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회원 일동

(이상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있는 한국 가톨릭 농민회 주최 「농협 실태조사 연구」 모임에서 나온 결의문이다.)

## 숲 정 이 산책

amnesty international

# 國際 엠네스티 委員會란?



MRA 전북 본부 김 의 완(프란치스코)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는 세계적 규모를 가진 인권옹호 단체로서 어떤 특정한 정부·정파 또는 종교적 신앙과도 무관한 독립적인 국제민간단체이다. 자기 자신의 신념, 피부색, 인종 또는 종교때문에 투옥 당하고 있는 남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권장할 일이 없는 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고문의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며, 수감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연합 수감자 처우 최저기준이 전세계에 걸쳐서 준수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엠네스티위원회는 국제연합, 유네스코, 유럽이사회 및 아메리카 국가기구의 자문기구이며, 아프리카민족 단결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 전문,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인식시키고 또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는 1973년 11월 26일 224페이지에 달하는「고문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후 반공문운본부 설립하고 매월 각국에서 일어나는 고문등 잔학행위를 폭로하면서 인권유린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수만에 달하는 정치범을 석방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도처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한 일이 없는 많은 남자가 오직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 피부색, 언어때문에 구금 당하고 있다.

소련에는 1만명, 칠레에는 5천명, 아르헨티나에는 4천명, 쿠바에는 5천명, 우루과이에는 5천명의 정치범이 있다고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는 말하고 있다. 인도지나에는 10만명의 정치범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1965년 이후 지금까지 재판없이 구금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2년전에 크메르 르주가 집권한 캄보디아에서는 인구의 4분의1이 학살 됐는데 정치범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밖에 월남, 아프리카 대륙전역, 시리아, 이스라엘, 체코, 자유중국, 중공, 방글라데시, 예멘 북부아일랜트등 무수한 나라에 정치범이 있는데 어렵잡

아 50만명을 넘는다. 그 하나 하나를 파악하고 돕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 회원들은 감히 이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회원들은 친진난만하지도 않다. 그들은 정치적 탄압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왔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데올로기가 다른 진영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 탄압이 없는 소수국가에서도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통치자들은 자기의 정적에 대해 지극히 냉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 회원들은 창의와 인내를 가지고 양심수인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개개 수감자에게 끊임없이 격려의 서신을 띄우고, 정부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고 수감자의 가족에게 구호금품을 보낸다. 그러다가 때때로 수감자를 석방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수감자가 양심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80명으로 구성된 연구조사실에서 세밀한 분석, 검토 그리고 두 번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활동을 시작하므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침해에 관한 자료를 이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공정성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는 권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과 수감자에 대한 학대라는 야만행위를 종식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평화롭게 발표할 수 있는 인류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1977년을 “양심수인의 해”로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UN이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는 대서명운동을 벌임으로써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성령”은 지금 세계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현대의 정신사는 어디로 흐르고 있나? 양식있는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고 아쉽기만 하다.

“양심을 수출하자” “사랑을 수출하자”

## 제 10 차

# (환)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 (영)

때... 9월 3일(토) - 4일(일), 곳... 전주 가톨릭 센터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 반주법(명곡, 가요), 성악(독창, 합창), 출장지도  
화성학, 대학진학자 발성지도  
가수지망생,



## 전자올겐, 피아노

개인지도(3-5388)

이일규 (알로이시오) 이사회회장  
전주소방서 북방 70미터 기린전제2층

□성서 교실 17□



[티 토 서]

현 유 복 부 제

**개요:** 티토서는 바울로 사도가 그의 제자로서 지방교회의 주교인 티토에게 사목적 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교자 1세기에 로마에서 집필한 사목 서간이다 (티모 후 1,37).

**저자:** 티토에 관해서 사도행전에는 전연 말이 없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1-3에 의하면 그는 외교인으로서 귀화한 그리스도 신자(Heiden-Christus)로 나타난다. 티토는 사도회의 때 바울로를 동반하였고(갈라2,1) 코린토에 파견되었다가(코린 후 2,13; 7,13) 바울로에 의해서 크레타 섬의 주교로 임명되었다(티토1,5). 따라서 티토가 이 섬의 주교로 있을 때 바울로는 이 서간을 통하여 제자인 그에게 주교 직무에 관한 훈시와 지침을 준 것이다.

**내용과 신학:** 바울로는 티토에게 명하여 주교들과 장로들을 임명하며 지방 교회의 질서를 확립케하고(1,5-9) 이단설을 거슬러 싸우며(1,10-16; 3,9-11) 교회내 국제 각종의 계급들을 잘 보살피도록 권한다(2,1-10).

사실 사목서간중의 하나인 티토서는 티모테오 전후서의 저술 목적과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목 서간의 저술 당시 교회의 환경을 소급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교제 제도의 설정 및 교회법 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서간들에 나타나는 교제제도는 대단히 사리에 맞다.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이원론에 반대하면서 교회는 지도자를 선정할 때 큰 학자나 종교적 광인(狂人)을 찾지않고 다만 생각이 바르고 솔직하고 신중하며, 음주와 다름질을 하지 않고, 단지 한번만 결혼한 자로서, 가사를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선정하고(티토1,5-9) 그의 품행에 있어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했는데(티모전3,7) 그 선정 양식이 코린토 전서 4,12이하에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난다. 사목 서간 저술 당시에는 예언적이며 직접 성신의 영감을 받아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대신 평범한 일상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이라고 해서 순탄한 생활은 아니며 더구나 박해 시기가 임박하고 있음을 사목 서간 저자는 직감하고서, 박해에 대처하여 치명자 사도 바울로를 그리스도 신자들과 특히 교직자들에게 신앙인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서간들을 교회 제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서간들로 간주(무라토리 정전 목록)하느니 만큼 이 서간을 통하여 바울로 사도가 뜻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자나 교직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겠다.

요심이 (213) 김병오



☐주산반·부기반·경리실무반☐

삼일주산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정진경 (분도)

☎ 1462

병무청 ← 구법원 중간

□타자수리,취업알선,매월검정□

뉴-타자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농동 605-1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직원 모집 공고□

(가톨릭 신자)

1. 경리직  
2년이상 경력을 가진 미혼여성  
○명
  2. 매점 점원  
18세미만 여성으로 중학교 졸업자  
○명
  3. 주방 근무자  
45세미만 여성으로 외모 단정하고 요리솜씨 있는 분  
○명
  4. 가톨릭 시보 취급자  
남자로서 가끔적 야간 고등학교 재학생 환영!
- ※ 이상 응모자는 전주 가톨릭센터 사무실에 8월 28일까지 서류(이력서, 졸업 증명서) 제출 바람, 면접-8월 29일 오전 10시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계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시장동  
(전화 4577)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9월은 복자 성월! (9월동안 매 금요일 아침 6시, 해성학교 순교자 현양탑 앞에서 미사가 있겠으니 시내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天主敎 全州敎區報 「술정이」, 경제적 난관에 불착 !!!

여러 분당에서 청산해야될 술정이 대금이 600,000여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 출판사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큼니다. 외상으로는 중이를 못사는 형편입니다.

본 편집실에서도 우송료가 62,300원이나 밀려 당장 술정이 발송에 애로가 많습니다

분당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 정의 평화 미사(29일<월> 오후 8시, 전동성당)...시내 교우의 많은 참석바람 미사 후에 전국 평협총회 준비를 위한 전주시 사도회장단과 평협 상임위원 연석회의 있음
2. 인성회 교육(9월 2일<금> 오후 2시-3일<토> 오후 1시, 가톨릭센터) 인성회 상임위원 및 위원(각 분당 사도회장)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3. 제10차 전국 평협 총회(9월 3일<토> 오후 2시-4일<일>, 가톨릭센터)
  - 28일은 교구장이신 김 재덕 주교님의 영명축일, 뜨거운 기도 바랍니다. (행사는 29일)
  - 발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김 윤섭 신부 방송
  - 서해방송(SCB)...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윤 규현 신부 방송
  - 서해방송 생활교도 발송안내(매월 첫주일 아침 7시 40분, 김 준호 신부, 금주...8월 28일 아침 7시 40분)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 김진석 보좌 신부 김이복 사도 회장 이복석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월례회 ①사도회: 28일공식미사 후, 강당에서 ②어머니 합창단: 9월 6일 오전10시 ③성심 부녀회: 9월 2일 어머니미사 후
2. 주일학교 개학: 9월 3일 <토>오후3시
3. 예비자 교리 개강: 9월 4일 부터, 시간표는 종전과 같음
4. 첫 영성체 교리(국민학교생); 9월 5일 부터 매일 오후 5-6시
5. 성경 강좌 신설: 9월 5일부터 매주<월·수·토> 저녁 미사후(제복-공관복을 입문과 해설, 대상-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준비물-성경, 필기도구, 장소-강당)
6. 교무금 납부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중앙비닐 심옥복 (스태파노)씨, 사무실 방에 비닐장판 기증
  - 지난주 봉헌금: 107,525원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꼭나오세요
2. 봉헌금(교무금),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었는가?
3. 교회 회계년도 변경 12월말로, 추경 (10-12월말)에 산에 적극 협조 바람
4. 첫 영성체 교리: 9월 12-24일 오후 5-6시만, 9월 4일까지 신청 하세요
5. 9월은 복자성월! 시복, 시성을 위해 유해 모시고 매일 미사후 공동으로 특별기도 ※매일 오전5시-밤10시까지 개방, 각당전, 가정, 개인별로 기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1,47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 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신부 박장춘 사도 회장 박장춘

1. 공노 어린이 첫 영성체식: 공식미사 중, 축하합니다
2. 새가족 사회 청신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꾸르실리스타 모임: 오늘 밤8시반-10시 (시간연수)
4. 명상의 집 신축기금 신임명단(중노1가권) 김진석, 조재희, 김중순 (각2천원), 이희용, 이일순, 유봉래, 한보령, 조영옥, 이원희, 손영제, 이정자 (각3천원) 양광식, 박준구, 양순례, 이옥순, 한명님, 장성복, 안발순, 박계봉, 최일선, 엄종섭, 황원희, 이성순, 임채규, 이해숙, 이대환, 진기성, 오정옥, 김재철, 박일천 (각1만원), 김진우 (1천원), 한영순, 최금연, 전길남, 김홍수, 이정숙 (각2만원), 김요순, 한인이, 백옥님, 안삼순, 박약민, 함안이, 이명래 (각5천원) 김금순 (1만3천원), 소귀래, 박혜순, 조해형 (각5만원), 주유미 (1천5백원), 방희순 (2만5천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1,925원

1. 9월은 복자성월! 아직 시복되지 못한 순교자들이 하루속히 시복되도록 정성껏 기도합니다
2.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구, 반장님들전원 참석 바람
3. 교무금 완납에 적극 참여 합시다
  - 1반 (강안중, 강규선, 김집순, 이석조, 이종배), 2반 (김경찬, 오상팔, 한인규)3반(김재열, 조선봉) ...교무금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7,8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술정미)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전종근 사도 회장 전종근

1. 미사시간 변경: 주일 공식미사, <월> 오전미사-10시, <금> 저녁미사-7시, 매일 저녁 미사-7시만
2. 주일학교 개학: 9월 4일 오후2시, 잊지마세요
3. 각종, 반장님, 지역 회장님 모임; 주일 공식미사후, 회합실
4. 새성당 비품마련 위해 부녀회에서 기를열가 판매 참가를 2호반-1,200원, 사라다2호-1,400원
5. 신입하신 성당 신축금, 조속히 완납하시길
  - 지난주 봉헌금: 55,780원
  - 신축기금 신입: 유대희 (의자8구좌), 엄경자, 김종환 (각2만원), 홍성미 (1만원) 총합 계 9,055,000원 현재 납부액 5,029,456원

1. 사도회, 부녀회 월례회: 9월 4일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9월 첫주부터, 사무실에 접수 바람
3. 고교 3년생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 바람
4. 공동체 성가를 모두 배웁시다: 매주일 미사 후
5. 학생 쉼 모임: 오늘 오후3시
6. 누깁다 유치원 개원: 8월 29일<2학기>
7. 미사시간 변경 <9월 1일부터> 주일-아침 6시만, 10시(공식미사), 저녁 7시만 평일-아침 6시만, 저녁 7시만
  - 8.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강원모, 이기호, 엄익봉
  - 지난주 봉헌금: 72,71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 ※ 9월은 복자성월! 봉헌의달 (성당건립금, 교무금)
1. 동반장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공식미사후, 치명자산
  3. 예비자 교리계속 <주일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111,780원
    - 새성당 신축기금 감사합니다! (현금...9,407,000원)
    - 신입금: 동완산동-오공천 (1만), 탁수산나(2천), 최마리아(1천), / 교동-전승우 (5천) / 경원동-라요안나 (1만) / 호자동-체헤레나 (5천) 누계: 30,516,000원